

## Session 14 Ziklag: Compromise & Recovery (1 Sam. 27-30; Ps. 18) 제 14 장 시글락: 타협과 회복 (삼상 27-30 장; 시 18 편)

### I. INTRODUCTION

#### 도입

- A. After the miracle in 1 Samuel 26, David was overcome with despair and left the territory of Israel (27:1). He lost hold of the clear, prophetic insight that he had about the Lord removing Saul (26:10). In this season of his life, David embraced compromise based in fear, though he had been delivered 12 times before this (18:11, 27; 19:6, 18; 20:1; 22:1; 23:12-14; 23:28; 24:11; 25:33; 26:12).

다윗은 삼상 26 장의 기적 이후에 절망에 휩싸여 이스라엘 땅을 떠났다 (27:1). 그는 주님께서 사울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명확하고도 예언적인 통찰력을 놓쳐 버렸다 (26:10). 그동안 주님께서 그를 12 번이나 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시즌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타협으로 들어가게 됐다 (18:11, 27; 19:6, 18; 20:1; 22:1; 23:12-14; 23:28; 24:11; 25:33; 26:12).

<sup>1</sup>And David said in his heart, “Now I shall perish someday by the hand of Saul. There is nothing better for me than that I should speedily escape to the land of the Philistines [Gath and Ziklag].” (1 Sam. 27:1)

<sup>1</sup>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가드와 시글락]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 (삼상 27:1)

<sup>9</sup>David said to Abishai, “...for who can stretch out his hand against the LORD’s anointed, and be guiltless? <sup>10</sup>...the LORD shall strike him...he shall go out to battle and perish.” (1 Sam. 26:9-10)

<sup>9</sup>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sup>10</sup>...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삼상 26:9-10)

- B. There were times when his circumstances contradicted God’s promises over his life that everything seemed lost to David. The Lord was testing his faith and calling him to realign his thinking and refine his character. He learned lessons in these times that he would not have learned otherwise.

다윗의 삶에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는 맞지 않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있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그의 생각을 재정립시키고 그의 성품을 새롭게 하는 일로 부르고 계셨다. 그는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다.

- C. Our battle is a fight for faith or for believing God’s Word in the face of our fears. To trust God in times of blessing and victory is one thing, but to trust Him when things look negative is another.

우리의 싸움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축복이나 승리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 D. The Lord wanted David to learn to trust Him in a more consistent way in negative times. The Lord was training him to be a king who would lead with obedience and faith so Israel would be blessed under his leadership. The Lord asks us, “Will you trust Me in the challenging times?” God wants us to be reliable or stable in faith through all the different seasons of our life, not just the easier ones.

주님은 다윗이 부정적인 상황에도 더욱 한결같이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다. 주님은 다윗을 순종과 믿음으로 이끄는 왕이 되게끔 훈련하고 계셨으며, 이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 “힘든 시간에도 나를 신뢰하겠니?” 하나님은 우리가 쉬운 상황들만이 아니라, 삶의 각기 다른 시즌에서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요동치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 E. Earlier the Lord had commanded David to return to the land of Judah (22:5). David was to trust the Lord to protect and train him in the land of Israel. However, David fled again to Gath to be safe from Saul. Achish the king of Gath gave David the city of Ziklag. David trusted the walls of Gath and Ziklag instead of the hand of the Lord. He concluded it was safer in the land of the Philistines with a heathen king protecting him than to remain in the land of Judah with the Lord protecting him. I imagine Gad said, “David, you cannot go back to Gath. You have to stay in Judah” (22:5).

앞에서 주님은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22:5). 다윗은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땅에서 보호하고 훈련하실 것을 신뢰해야 했다. 그러나 다윗은 또 사울을 피해 가드로 도망했다. 가드의 아기스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었다. 다윗은 주님의 손을 의지하기 보다 가드와 시글락의 성벽을 의지했다. 그는 주님이 보호하시는 유다 땅에 남는 것 보다 이교도 왕이 보호하는 블레셋 땅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아마도 선지자 갓은 “다윗, 가드로 돌아가면 안됩니다. 유다땅에 거하십시오.” 했을 것이다 (22:5).

<sup>5</sup>Now the prophet Gad said to David, “Do not stay in the stronghold...go to the land of Judah.” (1 Sam. 22:5)

<sup>5</sup>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 (삼상 22:5)

- F. At 28 years old, David was 16 months from the Lord removing Saul by death. David did not know that he was only 16 months from a significant shift in his life, which happened when he was 30.

다윗은 당시 28 세로, 주님이 사울을 죽음으로 데려가시기 까지 16 개월 밖에 남지 않은 때였다. 다윗은 자신이 30 세가 되면 일어나게 될 중요한 변화가, 고작 16 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 G. Obeying the prophetic word to stay in Judah during the years described in 1 Samuel 22-26 resulted in many added pressures for David instead of more peace with added blessings in his circumstances. David escaped from Gath in 22:1 but now escaped to Gath. Both times that he went to Gath (21:10), his plan “seemed” to work in that Saul ceased to pursue him, but other new pressures soon emerged.

다윗은 삼상 22-26 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다 땅에 거하라는 예언적인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인해 더 큰 축복과 평안이 아닌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다. 다윗은 22:1 절에서 가드로부터 도망쳐 나왔지만 지금은 가드로 도망쳐 들어갔다. 그가 가드로 간 두 번 모두 (21:10), 사울이 그를 쫓는 일을 멈추었기에 그의 계획이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곧 새로운 어려움이 모습을 드러냈다.

- H. David went to Gath for a second time. Achish received him, giving him the city of Ziklag. This began a season where he embraced compromise and telling lies to Achish.

다윗은 다시 가드로 갔다. 아기스왕은 그를 영접하고 시글락 땅을 그에게 주었다. 이 때부터 다윗에게는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말하고 타협에 들어가는 시늉이 시작되었다.

## II. DAVID RETURNED TO GATH AND SETTLED IN ZIKLAG (1 SAM. 27:1-12)

다윗이 가드로 돌아가 시글락에 정착하다 (삼상 27:1-12)

- A. David fled to the Philistine city of Gath out of fear that Saul would eventually catch him (27:1-4). It was very difficult for David to move from place to place in the wilderness of Judah with the responsibility to feed and care for so many families (27:3).

다윗은 사울이 결국 자신을 붙잡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로 도망쳤다 (27:1-4). 다윗이 수많은 가족들을 먹이고 돌보면서 유다 광야의 이곳 저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27:3).

*<sup>1</sup>David said in his heart, “Now I shall perish someday by the hand of Saul...I should speedily escape to the land of the Philistines; and Saul will despair of me, to seek me anymore in any part of Israel...”<sup>2</sup>Then David arose and went over with the six hundred men who were with him to Achish... king of Gath.<sup>3</sup>So David dwelt with Achish at Gath, he and his men, each man with his household...<sup>4</sup>And it was told Saul that David had fled to Gath; so he sought him no more.*  
(1 Sam. 27:1-4)

<sup>1</sup>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도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 <sup>2</sup>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육백 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sup>3</sup>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 <sup>4</sup>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삼상 27:1-4)

- B. **Leadership Lesson:** Be careful not to make decisions out of despair to gain only short-term relief.

리더십 교훈: 잠깐의 위안을 얻기 위해 절망의 상태를 벗어나기로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 C. David asked to live outside the royal city of Gath. He could act freely, without accountability. Ziklag was far enough from Saul’s territory to be safe and from Gath not to be under their scrutiny. Being isolated made it more vulnerable to raids by the Amalekites and other roaming bands, but David covered his tracks (27:11). Things seemed to work until it backfired in tragedy (30:1)

다윗은 왕의 도시인 가드가 아닌 지방 성읍에 살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어떤 의무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 시글락은 사울의 영토에서 충분히 멀어 안전했고, 가드로부터도 멀어서 감시를 받지 않아도 됐다. 다윗은 홀로 떨어져 있어서 아말렉 족속과 다른 돌아다니는 무리의 습격에 더욱 취약해졌지만 자신의 종적을 감출 수 있었다 (27:11). 이 일은 비극적인 역효과가 나기 전까지는 잘 되어가는 듯 했다 (30:1).

*<sup>5</sup>David said to Achish, “If I have now found favor in your eyes, let them give me a place in some town in the country...Why should your servant dwell in the royal city with you?”<sup>6</sup>So Achish gave him Ziklag...<sup>7</sup>The time that David dwelt in the country of the Philistines was one full year and four months.<sup>8</sup>And David and his men went up and raided the Geshurites, the Girzites, and the Amalekites...<sup>9</sup>Whenever David attacked the land, he left neither man nor woman alive, but took away the sheep, the oxen, the donkeys...<sup>10</sup>Then Achish would say, “Where have you made a raid today?” And*

David would say, “Against the southern area of Judah, or against the southern area of the Jerahmeelites...”<sup>11</sup> David would save neither man nor woman alive, to bring news to Gath, saying, “Lest they should inform on us...” And thus was his behavior all the time he dwelt in the country of the Philistines.<sup>12</sup> So Achish believed David, saying, “He has made his people Israel utterly abhor him; therefore he will be my servant forever.” (1 Sam. 27:5-12)

<sup>5</sup>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sup>6</sup>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 <sup>7</sup>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일 년 사 개월이었더라 <sup>8</sup>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 <sup>9</sup>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 <sup>10</sup>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겟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겟과 겐 사람의 네겟이니이다 하였더라 <sup>11</sup>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sup>12</sup>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삼상 27:5-12)

### III. THE PHILISTINES PREPARED TO GO TO WAR WITH ISRAEL (1 SAM. 28:1-2)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다 (삼상 28:1-2)

- A. Achish ordered David to march with him into the camp where Philistine gathered at Aphek (29:1).

아기스왕은 다윗에게 블레셋 군대가 모인 아벡으로 자신과 함께 싸우러 나갈 것을 명령했다 (29:1).

<sup>1</sup>Now it happened in those days that the Philistines gathered their armies together for war, to fight with Israel. And Achish said to David, “You assuredly know that you will go out with me to battle, you and your men.”<sup>2</sup>So David said to Achish, “Surely you know what your servant can do.” And Achish said to David, “Therefore I will make you one of my chief guardians forever.” (1 Sam. 28:1-2)

<sup>1</sup>그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sup>2</sup>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삼상 28:1-2)

- B. Achish spoke to David about being his lifelong bodyguard (28:2). This was a trusted position of prestige in the inner circle of the royal court.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종신 경호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28:2). 이것은 궁중의 핵심층의 권위 있는 중책이었다.

- C. 1 Samuel 29 resumes the story of David and Achish that was suspended after 28:2. In other words, chronologically, the events in this passage are followed by the events in 28:3-25.

삼상 29 장에서는 삼상 28:2 절에서 중단되었던 다윗과 아기스의 스토리가 재개된다. 시간 순서상으로는 28:3-25 절의 사건들은 삼상 29 장 뒤에 나와야 한다.

### IV. THE PHILISTINE RULERS AND DAVID (1 SAM. 29:1-11)

블레셋 수령들과 다윗 (삼상 29:3-11)

- A. The Philistine army gathered at Aphek about 30 miles north of Gath, as it was a strategic place to gather before advancing toward the north.

블레셋 군대는 가드에서 북쪽으로 약 30 마일 떨어진 아벡이라는 곳에서 모였는데, 북쪽으로 진군하기 전에 모이기에 전략적으로 좋은 장소였다.

<sup>1</sup>Then the Philistines gathered together all their armies at Aphek, and the Israelites encamped by a fountain which is in Jezreel. <sup>2</sup>And the lords of the Philistines passed in review by hundreds and by thousands, but David and his men passed in review at the rear with Achish. (1 Sam. 29:1-2)

<sup>1</sup>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 쳤더라 <sup>2</sup>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삼상 29:1-2)

- B. Philistine rulers were angry at Achish for asking David and his men to join the battle (29:3-5).

블레셋의 방백들은 아기스왕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전쟁에 참전하도록 요구한 것에 분노했다 (29:3-5).

<sup>3</sup>Then the princes of the Philistines said, “What are these Hebrews doing here?” And Achish said to the princes of the Philistines, “Is this not David...who has been with me...these years? And to this day I have found no fault in him...” <sup>4</sup>But the princes of the Philistines were angry with him; so the princes of the Philistines said to him, “Make this fellow return...” (1 Sam. 29:3-4)

<sup>3</sup>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던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sup>4</sup>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 (삼상 29:3-4)

- C. The conversation between Achish and David (29:6-11)

아기스와 다윗의 대화 (29:6-11)

<sup>6</sup>Then Achish called David and said to him, “...I have not found evil in you since the day of your coming to me...” <sup>10</sup>As soon as you are up early in the morning and have light, depart.” <sup>11</sup>So David and his men rose early...to return to the land of the Philistines. (1 Sam. 29:6-11)

<sup>6</sup>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 <sup>10</sup>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sup>11</sup>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 (삼상 29:6-11)

V. DAVID’S TERRIBLE TRAGEDY AND GREAT VICTORY IN ZIKLAG (1 SAM. 30:1-31)

다윗의 끔찍한 비극과 시글락에서의 위대한 승리 (삼상 30:1-31)

- A. Blessing, tragedy, and consequences for David's compromise and lies converged in 1 Samuel 30-31. The battle between the Philistines and Israel resulted in removing Saul from his life (1 Sam. 31), yet at the same time the city of Ziklag where he lived was burned and his men turned on him.

사무엘상 30-31 장에는 축복, 비극, 그리고 다윗의 타협과 거짓말로 인한 결론이 집중되어 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사울이 제거되었지만(삼상 31 장), 동시에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던 시글락이 불에 타고 그의 사람들이 그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일어났다.

- B. David's experiences in Ziklag give us insight into what he understood about God's heart. He spent sixteen months at Ziklag (1 Sam. 27-31). During this season, David *stumbled in compromise* and was tested by the *loss of his family*, the *burning of his city*, and the *betrayal of his friends*, yet he did not draw back from God. Rather, he set his heart to pursue the Lord and trust His mercy and love.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경험은 그가 이해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는 시글락에서 16 개월을 보냈다(삼상 27-31 장). 다윗은 이 시즌 동안 **타협으로 인해 넘어지고, 그의 가족들을 잃고, 성읍은 불타고,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등의 시험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을 정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했다.

- C. David marched for 3 days from Aphek to Ziklag to find the Amalekites had burned Ziklag (30:1-2).

다윗이 사흘 동안 아베크에서 부터 시글락까지 걸어 돌아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불사른 것을 알게 되었다(30:1-2).

<sup>1</sup>Now it happened, when David and his men came to Ziklag, on the third day, that the Amalekites ...attacked Ziklag and burned it with fire, <sup>2</sup>and had taken captive the women and those who were there...they did not kill anyone, but carried them away and went their way. (1 Sam. 30:1-2)

<sup>1</sup>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겟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sup>2</sup>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삼상 30:1-2)

- D. David's great sorrow in Ziklag (30:3-6): David strengthened himself in God and inquired of, or asked, the Lord what to do (30:6-8). He did not let his stumbling in sin result in the failing of his faith by giving up his vision to fully seek the Lord and to recover all (1 Sam. 30:9-31).

시글락에서 겪은 다윗의 깊은 슬픔(30:3-6):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강건하게 하고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30:6-8). 다윗은 죄로 인해 넘어졌지만, 이 일로 인해 믿음을 잃지는 않았으며 주님을 온전히 찾는 일과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sup>3</sup>So David and his men came to the city, and there it was, burned with fire; and their wives, their sons, and their daughters had been taken captive. <sup>4</sup>Then David and the people who were with him lifted up their voices and wept, until they had no more power to weep...<sup>6</sup>Now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for the people spoke of stoning him...But David strengthen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sup>8</sup>David inquired of the LORD, saying, "Shall I pursue this troop? Shall I overtake them?" And He answered him, "Pursue, for you shall surely overtake them and without fail recover all."  
(1 Sam. 30:3-8)

<sup>3</sup>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sup>4</sup> 그러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으니,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더라.<sup>6</sup>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sup>8</sup>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삼상 30:3-8)

- E. David and his 600 men stopped at the Brook Besor; 200 stayed there, being so weary (30:9-10).

다윗과 그의 600 명의 사람들은 브솔 시내에 멈추어 섰는데, 피곤한 200 명은 거기에 머물렀다 (30:9-10).

<sup>10</sup>David pursued, he and four hundred men; for two hundred stayed behind, who were so weary that they could not cross the Brook Besor. (1 Sam. 30:9-10)

<sup>10</sup>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이백 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삼상 30:9-10)

- F. An Egyptian slave helped David locate the Amalekites (30:11-15).

아말렉의 종이었던 이집트 종은 다윗을 아멜렉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 (30:11-15).

<sup>11</sup>Then they found an Egyptian in the field, and brought him to David...<sup>13</sup>He said, "I am a young man from Egypt, servant of an Amalekite; and my master left me behind, because three days ago I fell sick. <sup>14</sup>We made an invasion of...the territory which belongs to Judah...we burned Ziklag with fire."<sup>15</sup>And David said to him, "Can you take me down to this troop?" (1 Sam. 30:11-15)

<sup>11</sup>그때 그들이 들에서 한 이집트인을 만난지라, 그를 다윗에게 데려가 ... <sup>13</sup>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집트 청년으로 아말렉인의 종이었는데, 삼 일 전에 내가 병이 드니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sup>14</sup>우리가 ... 유다에 속한 지경과 칼렘 남부를 침공하였으며, 우리가 시글락을 불태웠나이다." 하니 <sup>15</sup>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그 부대로 인도하겠느냐?" (삼상 30:11-15)

- G. David attacked the Amalekites (30:16-20). They recovered all of their families and property.

다윗은 아멜렉을 공격했다 (30:16-20). 그들은 가족들과 소유물 모두를 되찾았다.

<sup>16</sup>...they were spread out over all the land eating and drinking...<sup>17</sup>David attacked them from twilight until the evening of the next day...<sup>18</sup>David recovered all that the Amalekites had carried away, and David rescued his two wives. <sup>19</sup>And nothing of theirs was lacking... (1 Sam. 30:16-20)

<sup>16</sup>...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마시며 춤추고 있었으니 ... <sup>17</sup>그때 다윗이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그들을 치니 ... <sup>18</sup>다윗은 아말렉인들이 끌고 갔던 모든 것을 다시 찾고, 그의 두 아내도 구하니라.<sup>19</sup> ...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 다윗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니라.

- H. David returned to the Brook Besor (30:21-25).

다윗은 브솔 시내로 돌아왔다 (30:21-25).

<sup>21</sup>Now David came to the two hundred men who had been so weary that they could not follow David, whom they also had made to stay at the Brook Besor...he greeted them. <sup>22</sup>Then all the wicked and worthless men of those who went with David answered and said, "Because they did not go with us, we will not give them any of the spoil that we have recovered..."<sup>23</sup>David said, "My brethren, you shall not do so with what the LORD has given us, who has preserved us and delivered into our hand the troop that came

against us. <sup>24</sup>For who will heed you in this matter? But as his part is who goes down to the battle, so shall his part be who stays by the supplies; they shall share alike.” <sup>25</sup>So it was, from that day forward; he made it a statute... (1 Sam. 30:21-25)

<sup>21</sup>다윗이 그 이백 명에게로 왔으니, 이들은 심히 기진하여 다윗을 좇을 수 없었던 자들로 브솔 시냇가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이 나와서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과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더라. ... <sup>22</sup>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 약한 자들과 벨리알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탈취물들 중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지 않고 ... <sup>23</sup>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오는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느니라. <sup>24</sup>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터에 내려간 자의 몫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이 같으리니, 똑같이 나눌지니라." 하더라. <sup>25</sup> 이 일이 그 날부터 그렇게 되어 다윗이 그것을 이스라엘을 위한 율례와 규례로 삼았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삼상 30:21-25)

1. **The Lord has given us:** David saw God's ownership of the increase and fruits of their victory (Ps. 18:25). David saw God as his source of victory at Ziklag and as source of his promotion.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다윗은 그들의 승리의 열매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다 (시 18:25). 다윗은 시글락에서 승리하도록 해 주신 분과 자신을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다.

<sup>7</sup>For who makes you differ from another? And what do you have that you did not receive? Now if you did indeed receive it, why do you boast as if you had not received it? (1 Cor. 4:7)

<sup>7</sup>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나? 이제 네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고전 4:7)

2. **They shall share alike:** Those who fight and those who watch the bags all share equally in the spoils of war. The share of one who goes down to the battle is equal to the share of one watching the baggage (30:24). This is a foundational principle in the kingdom (1 Cor. 12).

똑같이 나눌지니라: 싸운 자들이나 소유물을 지키고 있던 자들은 모두 똑같이 탈취물을 나누었다. 전쟁터에 내려간 자의 몫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이 같았다 (30:24).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칙이다 (고전 12 장).

## VI. PS. 18 AND PS. 56

### 시편 18, 56 편

- A. The title of Psalm 18 tells us that David wrote it *on the day God delivered him from Saul*.

시편 18 편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이라고 되어 있다.

<sup>1</sup>I will love You, O LORD, my strength... <sup>19</sup>He also brought me out into a broad place; He delivered me because He delighted in me... <sup>35</sup> ...Your gentleness has made me great. (Ps. 18:1, 19, 35)

<sup>1</sup> ...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sup>19</sup>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나를 구하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기뻐하셨음이라. <sup>35</sup> ...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 B. The title of Psalm 56 informs us that David wrote this psalm while with Achish in the Ziklag years.



시편 56 편의 제목을 통해, 이 시편은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기스와 함께 있을 때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sup>8</sup>*You number my wanderings; put my tears into Your bottle; are they not in Your book? <sup>9</sup>*When I cry out to You, then my enemies will turn back; this I know, because God is for me. (Ps. 56:8-9)**

<sup>8</sup> 주께서 나의 방황함을 말씀하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sup>9</sup>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이다. 이것을 내가 아오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이니이다. (시 56:8-9)